

칼럼



송호동  
국민연금관리공단  
포천지장

스웨덴 속담에 인생 100년 그리고 7일이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100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7일 동안은 가족이나 친지의 병간호를 받다가 죽는다는 뜻이다. 왜 7일 동안은 병간호를 받아야 하는가? 적어도 7일 정도는 유족이나 주변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아야 그들의 마음이 덜 아프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은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에 살았던 잔 칼망이란 여성이며 122세(1882 ~ 2004년)까지 살았다고 한다. 이 여성의 인생에서 유명한 일화는 나이 90세 때에 변호사와 체결한 계약이다. 계약내용은 잔 칼망이 죽을 때까지 변호사는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대신 그녀가 사망하면 남은 재산은 그 변호사가 물려받기로 하였다. 요즘 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것이다. 그 변호사의 입장에서 나이 90이 된 그녀가 얼마 못 살 것이며 그녀가 사망하면 그녀의 재산을 소유하게 되므로 상당히 유리한 계약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불행

인지 다행인지 그녀가 그로부터 32년이나 더 살았으니 그 변호사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며 그녀보다 먼저 사망했다고 한다.

오늘날은 100세 시대라고 말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어쩌면 10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1970년대에 불과 62세였으나 2006년에는 79세로 늘어났다. 35년 만에 17세가 늘어났으며 앞으로는 매 5년마다 1세 정도씩 늘설지가 않다.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면 60세나 70세 이후의 가나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동두천이나 천안 가는 지하철을 타면 많은 사람들이 노인이다. 집에 있자니 갑갑하고 갈 곳도 없으니, 공짜 기차를 타고 멀리 동두천이나 천안까지 하릴없이 왔다 가는 것이다. 모두가 무표정하다. 삶의 생기가 향기가 없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분명 아니다.

그러면 짧게는 20년 길게는 40년인 긴 노후를 생기고 향기롭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필자인 제가 생각하기에 노후에 꼭 필요한 것은 5가지이다. 건강, 친구, 취미, 일(직업), 돈이다. 사람들은 노후준비 한다고 하면 돈 걱정만을 하는데, 돈은 있는데 나머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노후는 행복하지 않다. 첫째, 건강은 말 할 필요가 없다. 재

활화장이라도 병든 몸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만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한다. 옛날에 죄를 지은 부자에게 고을 재판관이 벌금 50냥을 내거나, 곤장 50대를 맞거나, 생마늘 다섯 근을 먹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판결했다. 부자인 죄인은 처음에는 마늘을 먹겠다고 했다. 그러나 마늘을 먹어보니 다섯 근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에는 곤장을 맞겠다고 했다. 이 또한 몇 대 맞고 나니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어 결국, 벌금 50냥을 내고 풀려났다는 이야기가 있다. 말로는 건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건강보다는 돈을 더 중

음화 한편 가지 않은 사람이 60이 넘어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이 재미있을 수가 없다.

넷째, 한역에서 퇴직 후 시작하는 일은 제2의 인생을 살게 한다. 젊어서 자식 키우고 먹고사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수입이 있으면 노년의 부족한 돈을 메워주니까 더 좋다. 수입이 없어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니 즐겁고 보람차다. 매출로우의 인생 5단계인 자아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년에 할 일을 젊어서 준비해야 한다.

다섯째, 노후에 필요한 돈은 어떤 돈일까? 부동산이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되겠지만 부동산 부자는 쓸 돈은 궁한 까닭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노후에 필요한 돈은 많은 돈이 아니라 나의 주머니를 항상 채워주는 생활금이 흐르는 돈이다. 국민연금을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지만 이제 국민연금이 실시 된지 20년이 되었다. 2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많이 받는 사람은 월 100만원을 넘게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가입한 경우는 국민연금만 가지고도 노후 생활비는 걱정이 없다. 앞으로 노인들은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로 인상이 된다.

노후를 위해 돈 걱정만 하지 말고 그 시간에 국민연금을 한 번 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10년 가입한 국민연금의 자산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드리고 싶다.

### 인생 100년 그리고 7일

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빗댄 이야기다.

둘째, 친구가 없으면 외롭고 삶의 의욕이 없다. 치매나 우울증에 시달리기 십상이며 이런 노인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 나이 들어서는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천안 가는 지하철을 타보면 느낄 수 있다.

셋째 취미는 인생의 향기다. 노후를 향기롭게 한다. 백발의 노인이 마라톤을 즐기며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친구가 없으면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고 숙련시켜야 그나마 나이 들어 시작해도 할 수 있다. 젊어서 소설 한 권 읽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취미로 책읽기가 되겠는가? 젊을 때

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성공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성공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운명은 젊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있는 것을 자각하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가는 가래가 크기는 것도 생각하기 바란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부디 지혜로운 인격자가 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공짜란 없습니다. 아무런 도전에 하지 않고 목표로 없이 단지 '사기'의 대로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역사를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매일 매일이 '새로운 하루'이고 '한번 밖에 없는 하루'입니다. 강한 체력과 강한 정신력(인내심)으로 진지하게 승부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으로 만족감과 충실한 그리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활기찬 하루 하루 속에서 지속적인 자기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함께 할 때야말로 위대한 승리가 열려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각인(烙印)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자주: 그동안 교육예세이 육고를 연재해 온 지정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은 9월1일자로 의정부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영전하여 이번 호로 교육예세이 연재를 마치게 된다. 그동안 포천지역 학생은 물론 학부모 사이에 큰 영향을 미친 지정주 교장의 교육예세이가 포천교육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천교육 발전을 위한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의정부교육발전 을 위해서도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 세익스피어 에세이

## 학력 위조는 허위적 정체성을 즐기는 희극적 비극이다



박정권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요즘 한국 사회의 화두는 단연 '학력 위조'이다. 학력 위조는 자기가 거치지 않은 학업경력을 과대 포장하여 남에게 잘 보이려는 사기적 행각이다. 결국 남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공직이나 이익을 취했다면 범법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남을 속이는 것이 용인되는 경우가 있거나 하면 이번의 경우처럼 사회로부터 빚발 같은 비난과 징계를 받기도 한다. 배우들은 마치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인물로 분장하여 역할을 하는 것처럼 큰 약의가 없었노라고 하소연하면서 이제 다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눈물 연가를 하며 선처를 부탁한다. 아마도 연극이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듯이 이제 가면 벗고 돌아갈 테니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다.

가면을 쓴 인물로 유명하다. 그는 학력 위조가 아니라 종교성 위조범으로 그의 속임수에 의해서 자신의 물질적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기만적인 인물이다. 그는 종교적 신심을 강조하는 귀족 오르공에게 성자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켜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다. 오르공은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파르푸프의 진면목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자신의 상당 부분을 헌금하고 심지어 딸마저 그에게 결혼시키려는 우매함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현실과 너무 유사한 점이 많다. 거짓 학력을 위조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든 자들을 가려내지 못하고 그들에게 미술관 큐레이터, 교수직, 성직을 맡겨버리는 것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 사회적 허위성에서 가능하다. 이제야 확산진흥원에 학력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드느니, 검찰에서 내사하느니 야근법칙을 펴내며 허를지통하고 있는 모습은 사회적, 학문적 혼돈의 아비규환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물리에르는 거짓 행각을 일삼고 있는 파르푸프를 검증하는 희극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는 영민한 파르푸프의 사기에 넘어간 오르공의 아내 엘리르로 하여금 검증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 엘리르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면서도 자신까지도 유혹하려고 하는 파르푸프의 위선을 드러낼 계획을 낸다. 사기꾼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오르공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그를 검증하는 순간을 목격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 그는 오르공을 탁자 밑에 숨게 하고 파르푸프를 유인하여 속마음을 드러내게 한다. 그녀는 파르푸프의 의심을 견어내기 위해 방문을 닫게 한 후 "당신에 대한 존경이 뇌우를 가라 앉혔고 남편은 의심의 그림자도 갖고 있지 않아요. 나쁜 소문이 꼭 퍼져도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단신과 단둘이 같이 있어도 비난받을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이처럼 당신에게 마음을 드러내 보일 수도 있어요. 당신의 정열에 대답하는 것이 너무 빠를지 모르지만요."라고 미끼를 던진다. 파르푸프는 약간의 의심이 들지만 그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다. 그는 주의의 눈을 의식하여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하는 엘리르에게 "저는 불안을 애는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신은 어떤 종류의 쾌락을 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과 절충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양심의 사슬을 늦추고 나쁜 행위를 의도의 순수함으로써 수정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중략) 당신은 저의 말대로 하면 됩니다.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부인해 폐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탁자 아래 숨어있는 오르공은 이제야 파르푸프의 진면목을 알아차린다."

어떤 자들은 거짓 학위로 버젓이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오히려 실력보다 학력을 높게 평가하는 사회의 풍조가 원인이라고 하며, 오히려 학력 무용론을 펼치려는 사람도 생겼다. 교수는 지식을 전수하는 자이기보다는 진리에 다가서는 방법론을 알게 하여 학생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역할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렇다면 학문에 대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제대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겠는가. 자신의 진실을 감추고 학생 스스로 진리를 가르칠 수 있던 말인가. 그야말로 악의적으로 가식적 가면을 쓰고 성자인 척하는 물리에르의 '파르푸프' 같은 자라고 볼 수 있다.

물리에르의 대표적 희극 '파르푸프'는 허위적

“물리에르는 거짓 행각을 일삼고 있는 파르푸프를 검증하는 희극적 장치를 마련한다. 그는 영민한 파르푸프의 사기에 넘어간 오르공의 아내 엘리르로 하여금 검증자의 역할을 하게 한다. 엘리르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면서도 자신까지도 유혹하려고 하는 파르푸프의 위선을 드러낼 계획을 낸다. 사기꾼을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오르공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그를 검증하는 순간을 목격하도록 할 수 밖에 없다. 그는 오르공을 탁자 밑에 숨게 하고 파르푸프를 유인하여 속마음을 드러내게 한다. 신은 어떤 종류의 쾌락을 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과 절충을 한다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양심의 사슬을 늦추고 나쁜 행위를 의도의 순수함으로써 수정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중략) 당신은 저의 말대로 하면 됩니다. 저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실 것 없습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부인해 폐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탁자 아래 숨어있는 오르공은 이제야 파르푸프의 진면목을 알아차린다.”

### 교육예세이 48

## 즐겁고 보람찬 2학기 생활을 하자!

포천의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설 레일으로 시작되고 즐겁던 여름 방학 생활을 마치고 여러 학생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등교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 학교생활을 하게 된 것을 저는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략 한 달 여에 걸친 지난 여름 방학 동안 여러 학생들은 각자 나름대로 여름 방학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천하면서 즐겁고 재미있게 또한 보람 있게 방학생활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름 방학 생활을 반성하고 정리하여 후 미흡하고 산만한 점이 있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의 학교 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학기 동안의 학교 생활은 매우 보람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절기상으로 일년 중 가장 아름다운 가을이 있어서 배우고 익히기에 알맞으며, 또한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계절임과 동시에 결실의 계절이며, 목표한 바를 이루어내는 성취의 계절, 마음의 양식을 넓혀주는 독서의 계절이기에 더욱 새로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2학기 기간의 여러 학생들의 생활은 무엇인가 이루어내고, 찾아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조해 내는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독일의 대문호인 괴테(Goethe)가 말하기를 "대단히 성실한 노력도 오직 끊임없이 조용히 거들하는 가운데 해(在)가 가고 새해가 되어 어느덧 그 빛을 본다. 노력의 지속적 관에는 반드시 영광과 승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努力(노력)은 천(天)이라 불리는 운명(運命)이 있습니다. 노력하게 되면 능히 천재(Ceas)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누구든지 확고한 신념으로 부단히 노력한다면 천재가 하는 일을 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편, 진(眞)사 대천명(盡人事聽天命)이라는 말도 생각해 봅시다. 이 말 뜻은 '사람이 할 일을 다하고 天命(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이른바 행운이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분명한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좋은 결실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깨나 끝까지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해야 할 일이라면 지극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새 학기의 설계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여러분의 중·고등학교



지정주  
포천여자중학교 교장

교 시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임을 명심하고, 뚜렷한 목표와 알찬 계획을 세워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 새 학기 출발을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뿌리는 자가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날의 피야말로 그들이며 작물을 거두어서 풍성한 가을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자 연은 때에 맞추어 심고 가꾼 자에게만 수확의 기쁨을 안겨 줍니다. 짧은 날, 인생의 봄을 맞이한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생각해 하십시오. 차근차근 지금부터 실천하기 바랍니다. 뿌리지 않는 자는 거둘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한 번 뿐인 인생! 여러분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바르게 생활하고 있는 걸까?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일상에 쫓기다보면 '삶의 변화'를 꿈꾸기는 커녕 현재 상태로 유지 하는 것도 힘에 부치게 마련이지만, 인생에 리허설(rehearsal)은 없다는 공경적인 사고(思考)와 적극적인 힘을 이끌어냄으로써, 힘겹고 때때로 지극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생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새 학기의 설계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여러분의 중·고등학교

# '여성전용' 송우리 불 한증막

## 소나무장작불 사용



※ 넓은 주차공간과 동시 입장 100명 가능

경기북부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송우리 불 한증막은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찾을수 있으며 고객님의 가정처럼 언제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031)541-3052~3 / 011)9864-5088 대표 이명순

포천 송우리 불한증막

송우리 시내

● 명품가구마을

● 포천휴게소

의정부